

성비위 무관용, 여성·청년 공천 확대...지방선거 승리 과제로

맞을린 민주 윤호중·박지현 비대위 정치 신인 발굴·환경 마련돼야 일부 "대선 패배 책임자가" 비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첫 발을 내딛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지현씨가 '투톱'을 맡은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윤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과녁이 되겠다. 고치고 바꾸고 비판받을 모든 화살을 쏘아 달라"며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뿌리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다섯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한다"며 "47.8%의 지지에 안도할 게 아니라 패배 원인을 찾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쇠신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여성·청년 공천 확대, 온정주의 타파 등을 쇠신 방향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강력한 쇠신 의지를 표명한 '윤호중·박지현 비대위'의 앞에는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

무엇보다도 현 비대위를 향한 의구심 섞인 시선을 불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김태진 비상대책위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다가올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 인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이 대선 패배의 책임자 중 하나라며 비대위를 이끄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에 대해서도 청년·여성 의제에 맞는 참신한 인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비대위원장의 중책까지 맡기는 것이 적합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1일 의총에서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고민과 닿아 있다.

당장 79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큰 고비다.

대선에서 나타난 표심에다 정부 출범 초기의 '허니문' 여론 등을 고려하면 패배의 위기감이 더 큰 상황이다.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수도권 등 격전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자칫 '참패'로 평가될 만한 결과나 나온다면 현 비대위의 리더십은 다시 무너지고 당도 더 큰 격랑에 휩쓸릴 수 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원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발언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 이런 가운데 당의 근본적인 노선 설정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권지웅 비대위원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향후 선수별 의원들과 만나는 등 당내 의견을 수렴하며 비대위의 활동 방향을 다듬어 갈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가진

뒤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 등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어 15일에는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민생을 살피고, 16일에는 광주에서 비대위 회의를 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출마선언도 없다...민주 원내대표 선거 '콘클라베' 주목

의총서 비공개 투표 총의 모아 선출...이론적으론 초선도 선출 가능 일각서는 친소관계 투표·물밑 계파대결 우려도... "혁신기회 놓칠라"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선거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5월 새 정부 출범 후 '거야(巨野)'를 이끌 원내 사령탑 선출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선 패배에 따른 비상대책위 출범과 맞물려 2개월 정도 앞당겨진 이번 선거는 변형된 교황선출(콘클라베)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결 구도와 판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14일 비대위에서 4선 김영주 의원을 원내대표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당규상의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선출 방법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나온 교황식 선출 제도다. 콘클라베로 불리는 이 방식은 한 명으로 총의가 모일 때까지 반복해서 투표하는 게 특징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각자 선호하는 인사를 비공개로 적어낸 뒤 투표를 거듭하면서 추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원내대표 선거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날짜는 선관위가 확정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23-24일 정도가 많이 거론된다.

원내대표 선거가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선거 양상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원내대표 경선 일정에 맞춰 3-4선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 대결을 하면서 원내 전력을 놓고 대결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공개적인 선거 활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를 앞둔 정권 발표 등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콘클라베 방식을 택한 것도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계파 대결 등이 과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 패배 후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원내대표 경선을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출마가 어렵다는 의문도 있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박광은·박홍근·이광재·이원욱·윤관석·홍익표 의원 등 10명 가까이가 거론되고 있다.

일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나 문자 연락 등을 통해서 물밑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식적인 후보군이 없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초선 원내대표도 가능한 상태다. 다만 당내에서는 결국 이해관계가 비슷한 계파별로 몰아주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전남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공모

시장·도의원 등 16일까지 군수·군의원 17~1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관련 전남지역 예비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4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기초단체장(시장), 광역의원(도의원), 기초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를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도당은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에 걸쳐 기초단체장(군수), 기초의원(군의원) 예비후보자를 공모한다. 비례대표 출마자는 공모하지 않는다.

공모 신청 자격은 당규 제10호 제2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정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한다고 도당은 밝혔다.

공모지는 후보자 추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당적증명서(도당 발급), 당비납부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 검증신청비 입금증(20만원)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전남도당위원장장은 "당헌당규에서 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예비후보를 등록하게 한 뒤, 추후 공관위에서 공천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세균 전 총리, 노무현재단 이사장 맡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을 맡는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11일 "정 전 총리가 지난 2월 22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6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도 이사장직을 수락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7년 열

린우리당의 마지막 당 의장이었다.

정 전 총리는 오는 18일 취임식을 갖고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는 2025년 2월까지 3년이다.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후 이정호 재단 이사가 이사장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상가건물 다량보유*
·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영암 신복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나주시 오랑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7,400㎡, 전체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현금 13억원)
·해남읍 사찰,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남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두암동 대지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동구 지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